기 자 회 견 문

에어부산의 장애인 차별 행위를 규탄 기자회견

안전한 비행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항 내 심리안정실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사회 : 민경선(진해장애인인권센터 사무국장)

- **참여단체 소개**

- **여는발언**

  - 강호진(경남 피플퍼스트 회장)

- **당사자발언**

  - 김동안(주간활동 당사자)
  - 전 옥(주간활동 전담인력)

- **기자회견문 낭독**

  -김민석(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박덕근(진해장애인인권센터 활동가)

- **닫는 발언**

  - 최진기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이사)

- **질의응답**

- **요구안 제출**

에어부산의 장애인 차별 행위를 규탄 기자회견

안전한 비행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항 내 심리안정실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장애로 인한 예상치 못한 행동 변화가 나타났다는 이유로 공항과 항공사로부터 잠재적 위험분자 취급을 받아야 했던 서글픈 인권 침해의 현실을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6년 5월 13일 오전,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간·방과후 활동팀은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출발 수속 대기 중, 피부 염증으로 인한 가려움증 때문에 일시적으로 불안 반응(도전행동)을 보인 발달장애인 이용자가 겪어야 했던 상황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식 수준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현장의 활동지원사들은 이용자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활동지원사들은 로비 밖 창가에 걸터앉아 청심환을 복용하게 하고, 보호자와의 통화를 연결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 끝에 이용자는 이내 심리적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미 다수의 비행기 탑승 이력이 있어 안전한 비행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도전행동 시 탑승 불가"... 항공기 기장의 명백한 차별적 언사

그러나 보안 검색을 마치고 무사히 탑승구 앞 대기석에서 탑승을 기다리던 중,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에어부산의 항공기 기장이 다가와 이용자의 신분을 확인하더니, **"탑승 후 이륙 전에 도전행동이 있으면 탑승할 수 없다"며 이를 수용하는 '서약서' 작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안내를 넘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6조는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이용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안정을 찾고 정상적으로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 승객에게 장애

특성과 관련된 행동을 이유로 별도의 서약서를 요구하고 탑승 거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장애인을 동등한 승객이 아닌 잠재적 위험인물로 간주한 행위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기장이 나와서 서약서 관련 이야기하는 사이 일반승객이 먼저 탑승이 시작되었고 확인절차를 마치고 우선탑승 대기줄에 서있자 기장이 일반승객 탑승을 멈추라 하시고 우선 탑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약 40분의 지연 책임이 마치 장애인 승객에게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당사자와 지원인력들은 수많은 승객들의 시선 속에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모멸감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항인가? 정서적 안정을 취할 공간조차 없는 현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히 개별 직원의 미숙한 대응에만 있지 않습니다.
공황이라는 공공시설 안에 발달장애인, 공황장애인, 치매 어르신 등 정서적 안정을 필요로 하는 교통약자가 위기 상황에서 잠시 휴식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전문 공간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통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 지원뿐 아니라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공항은 정서적 위기 상황에 놓인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가 부재하였고, 이용자는 소란스러운 공항 공간을 벗어나 차가운 실외 벤치에서 임기응변식으로 안정을 취해야 했습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이용 편의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누구든 장애를 이유로 이동과 여행의 자유를 제한받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에 우리는 에어부산과 한국공항공사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에어부산)

하나. 에어부산은 이번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해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활동지원팀에게 공식 사과하라!

장애를 이유로 서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탑승 거부 협박을 가한 기장과 관계자들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에어부산은 책임 있는 자세로 즉각 사과하라!

하나. 에어부산은 장애인 승객 응대 및 위기 상황 대처를 위한 재발방지 매뉴얼을 즉각 제작하라!

도전행동을 강압적으로 통제하거나 거부하는 방식이 아닌, 안전하게 지원하고 조율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을 구축하라!

하나. 에어부산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전격 강화하라!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실질적인 현장 교육을 의무화하라!

우리의 요구(한국공항공사)

하나. 한국공항공사은 김해공항내에 교통약자를 위한 '심리안정실(센서리룸, Sensory Room)'을 즉각 설치하라!

시각·청각적 자극을 최소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스누젤렌(Snoezelen) 기구 등을 갖춘 전문 공간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공황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존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 한국공항공사와 항공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

장애인 승객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아닌 지원과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수립하라!

우리는 에어부산과 한국공항공사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민원으로 치부하지 말고 장애인 이동권과 인권 보장의 문제로 인식할 것을 촉구한다.
장애가 차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시혜가 아닌 권리이며, 공항과 항공기는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이용해야 할 공공영역이다.

우리는 에어부산과 김해공항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다.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6월 11일

경남지역 장애인단체 일동

참여단체	**전국단위** (1개 단위)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남단위** (7개 단위)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남장애인평생학교협의회, 경남장애인부모연대, 피플퍼스트 경남,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남지부, 전국권리중심공공일자리 경남지부 **지역단위** (22개 단위) 고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장애인인권센터, 김해서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 김해시동료상담개발원,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밀양장애인인권센터, 밀양장애인평생학교,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산장애인인권센터, 경남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김해시서부지회, 사)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창원시지부,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창원시지회, 경남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창원시지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창원시지회, 창원시장애인동료상담개발원, 진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해장애인평생학교, 통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통영장애인인권센터

사무국	■ 연락처 : 055) 541-1330 ■ 주 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로64번길 3 부길골든프라자 305호 ■ E-mail : jhhotline@hanmail.net ■ 담당자 : 사무국장 민경선 010-2525-8318

인천국제공항 내 주요 휴게·대기 공간

제1여객터미널(T1) 장애인 안심여행센터 설치

제1여객터미널(T1) 교통약자서비스센터 설치

제2여객터미널(T2) 심리안정실 (센서리 룸, Sensory Room) 설치



심리안정실(센서리 룸)이란?

발달장애인, 공황장애 환자, 치매 어르신 등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승객을 위한 전문 공간입니다. 시각·청각적 자극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돕는 스누젤렌(Snoezelen) 기구(물기둥, 휠 프로젝터 등)가 갖추어져 있어 원하는 분위기로 공간을 연출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안심여행센터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위치한 장애인 안심여행센터는 보행 장애를 가진 여객의 편리한 출국을 돕기 위해 다양한 장애인 전용 서비스를 일원화하여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전동차 이동 서비스, 휠체어 대여 및 충전: 수동 휠체어 대여 등 지원함. 출국 심사를 받기 전,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용나느 서비스이며 보행 장애인을 집중 대상으로 지원함.

교통약자 서비스센터란?

인천공항 교통약자서비스센터는 교통약자(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여객 등)가 항공기 탑승 전 보안검색을 마치고 면세지역 내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대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무료 전용 라운지 공간입니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대기 시간이 길어질 때 매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출국 심사와 보안검색을 모두 마치고 교통약자가 탑승 게이트로 가기 전 휴식을 취하고 전동차 서비스를 지원함.